

누군가의 '진심'이 닿을 때

- 긴급돌봄서비스 우수사례 -

**B씨는 매일 아침 눈을
뜨기가 무섭습니다.**

"아이고,,, 오늘은 몸에
힘이 더 안 들어가네...."

**아침을 맞이한 B씨는
한숨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B씨는 후천성 근육병으로
홀로 일어날 수도, 걸을 수도 없어
5년 동안 전혀 바깥 외출을
하지 못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침대에서 내려오면서
낙상 사고도 여러 번 일어나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지만,

B씨는 가족 그리고 지인 등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원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광주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서비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매일 서비스가 필요한 B시를 위하여
주말은 물론 공휴일까지
서비스 제공이 계획되었습니다.**

**입맛이 없어 밥도 제대로 못 먹던
B시는 입맛에 맞는 음식제공으로
차츰 식사도 정상적으로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매일 누워 천장만 바라보던
B씨에게 가장 큰 행복은
자신의 안부를 물어봐주는
튼튼한 돌봄관리사 선생님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B씨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돌봄관리사 선생님과 함께
휠체어를 타고 바깥 공기를
느끼는 것이었는데요.

"몇 년간 거동이 어려워 외출을 못해
이렇게 사는게 맞나 싶었는데,,,
무언가 바라지 않고
마음을 다해 보살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B씨는 긴급돌봄서비스를 받고
자신의 삶에 활력을 얻게 되었다
생각하여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특히 긴급돌봄서비스가 끝나도
B씨가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활동지원, 복지용구지원 등
다양한 자원이 연계되었습니다.

눈 뜨기 두렵던 아침에서..
하루 하루 기대되는 나날이 되도록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이
앞으로도 함께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알고싶다면?



광주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광주사회서비스원
종합자가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